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57호 【루게 제 25766호】 주제 106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강원땅을 진감하는 선군혁명나팔수들의 힘찬 총진군포성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 원산시에서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기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실과 용기를 안겨주는 사회주의전진가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조국강안에 차던지는 승리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사상전선의 제일 나팔수, 전초병들인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이 강원땅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의 첫막을 올렸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이번 공연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할 강원도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비제과 그 후 종세력들의 아난적인 반공화국제압살해 등을 단호히 처감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태고조진군의 전열에서 대비악적혁신을 일으켜

나기도록 고무추동하는 힘찬 총진군포성으로 된다.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3일 원산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장소인 충도원정년아외극장은 강원도민들을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영광과 대제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 이어 국보급의 예술단체들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흥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공연을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강원도와 원산시안의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관람하였다.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사회주의

강국의 명마루를 활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위대한 로동당시대의 찬가, 혁명의 진군가들을 새롭게 창조형상하여 격동적인 공연 무대를 펼쳤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적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파시하며 애국가가가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에서 출연자들은 줄기차고 억센 함도의 힘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이끌어 기적의 만리마태고조를 열고 영웅인민을 키워가는 우리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감사의 정을 숭엄한 예술적형상으로 감명깊게 구가하였다.

무대에는 경음악과 노래편곡 《당여여 그대 있기에》, 여성독창 《아버지라 부릅시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그이 없인 못할 아》, 경음악 《대 나라 제일로 좋아》, 여성

중창 《조국과 나》, 《인생의 영광》, 가무 《보편아이》, 경음악 《단숨에》,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마프춤 《청춘시절》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열원,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불가항력적힘을 온 누리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남들같은 열매만도 주저않았을 최약의 역경속에서 강인담대한 배짱과 탁월한 명도로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워주시고 무궁무진한 태양민족의 천만민미래를 역책같이 담보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되새겨보는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힘로역경을 앞장서 헤치시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백승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무대 배경에 정중히 모셔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리었다.

강원도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하는 설화시 《영광의 땅, 강원도!》는 관람자들에게 숭엄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70여년전 9월 불멸의 첫 자욱을 세기신 때로부터 범동농민, 남강마을녀성들의 그 이름, 그 위훈과 함께 늘 마음속에 강원명을 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과 뜻깊은 선군장정의 나날, 혈맹과 오성산을 수없이 넘나드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주시고 불면하신 몸으로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소를 찾으시어 자력경쟁의 거대한 승전을 부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로고가 걸음걸음 사무쳐오는 력사의

고강 강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제취가 숨배인 이 땅에 세상 제일의 무용도원을 펼쳐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며 제 힘을 믿고 기적을 안아온 결사의 루사들을 억만금보다 더 귀중히 안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시대앞에 높이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구질구질 맥박치는 설화시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었다.

태양의 빛발아래 천지개벽의 새 전설을 수놓으며 로쿠마다에 《이제어경》을 펼치고 교산명의 대청춘파원에 파일봉년을 안아오는 강원도인민들의 기쁨과 광만을 노래한 여성중창 《바다 만봉가》, 《월명아래 사파바다》로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2 면 으 로 계 속



강원땅을 진감하는 선군혁명나팔수들의 힘찬 총진군포성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 원산시에서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



1 면에서 계속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별진 앞으로》,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에서 출연자들은 수명의 유혼관현악, 당정책임위원의 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강원도정신합창자들의 자력경쟁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시련의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을 따라 걸어온 신념의 길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따라 주체혁명의 천만리, 사회주의최후승리의 길로 이어갈 강원도인민들의 현세의 의지를 반영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민영의 기상이 나타내고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꽃피워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

향과 의지를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보인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드높이 강국의 휘황한 미래로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파시한 공연은 종국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혁명적기상, 천태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선군음악예술의 비상한 감화력과 건인력을 힘있게 보여준 공연은 관중의 대접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사상에술적으로 흥집음에 없이 완벽한 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애타게 입을 다물어 꽃다발을 안겨주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질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경쟁의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최후승리의 경승선에 남먼저

들어서려는 강원도정신합창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때때때론 격동적이며 황홀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목숨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통해 받아안은 커다란 충격과 흥분을 감지 못해하면서 려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공연무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강원도극도원정보서관리국 파장 한동국은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의 때 종목들이 온몸에 새 힘이 솟아올라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도에 관공있는 예술단체들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격을 이루 다 말할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정이 드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황홀한 예술공연을 여기 강원도에서 보게 되었으니 우리 심장이 왜 걱정과 환희로 뒹군 않았는가. 무대에 펼쳐진 하나하나의 종목들이 그

대로 우리에게 자력경쟁의 기치들이 시대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라고 힘과 용기를 주었다.

원산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정동혁은 이렇게 격정을 터지켰다.

공연은 몇백원의 책보다 더 충격적인 감회력으로 우리모두의 심장을 뚫어잡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질세위원의 불후에서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 보다 큰 승리를 마중해가는 우리 조국의 혁명적기상이 공연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공연을 보면서 우리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긴 어머니조국을 원만파악기술성파로 빛내이는 길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광그리 바쳐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원산군민발전소 노동자 김순희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의 앞장에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을 꼭 만나 손이라도 잡

아보고싶어 오늘 이렇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공연장으로 달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희한한 공연, 최상급의 공연을 보았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고 혁명의 노래들이 수명의 유혼관현악, 당정책임위원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값높이 내세워주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답게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다.

원산시 공인협동농장 농장원 최시광은 모든 종목들이 다 감동적이었지만 특히 설화사에서 우리 수평님께서 잊지 못해 하신 법동농민에 대한 시구절이 절절히 울릴 때 정말 생감이 깊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전정에서 이긴다고 한 법동농민의 소박한 말은 당과 수평만을 믿고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강

원도사람들의 신념이었다.

나역시 강원도의 농민으로서 법동농민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봉호를 굳건히 지켜가는 애국농민이 되겠다.

송도원청년아외극장 관장 리연화는 이렇듯 훌륭한 예술공연을 우리 극장에 펼쳐지게 된 기쁨에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강원도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당 제7차대회 질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가자고 우리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를 듣는것만 같았다.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우리 강원도에 인민의 이름다운 꿈과 이상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펼쳐놓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들만이 아닌 수많은 관중들이 공연이 끝나 후에도 흔저린 자리를 뜨지 못하며 공연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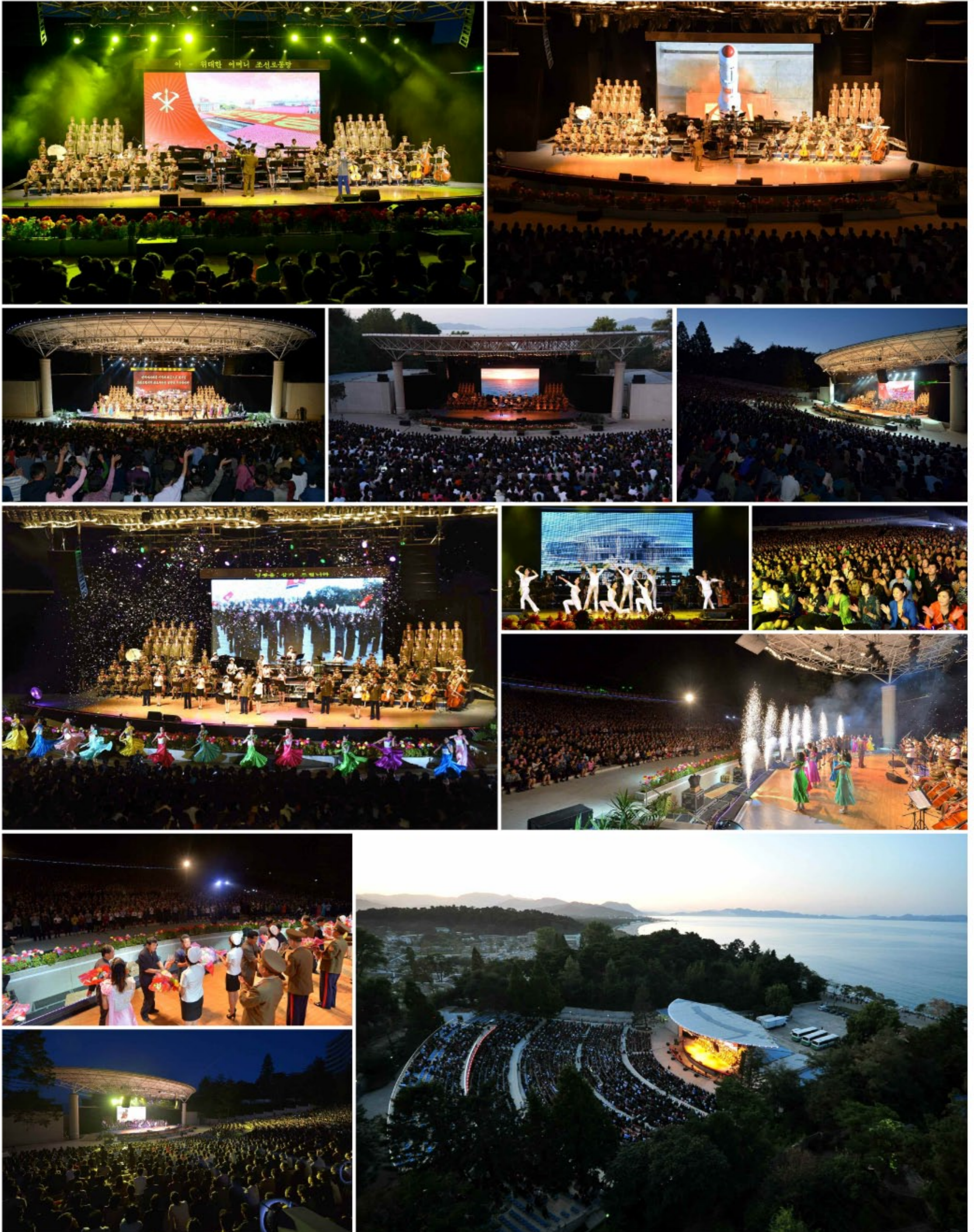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강원땅을 진감하는 선군혁명나팔수들의 힘찬 총진군포성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예술인들 원산시에서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병진의 기치 높이 자력갱생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련일 진행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련일 진행되고 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종 충군노사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핵강국의 존엄을 또다시 만방에 떨친 승리의 기쁨과 기세를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조국민영의 새로운 기적적승리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로 새차게 끌어안고있었다.

만포시, 북상, 평원, 삼강군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뜻깊은 9월에 올린 주체적일해무기의 장엄한 비성은 온 나라를 감싸는 감격과 환희로 불꽃에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만제반미대결전의 필승의 보증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핵강국으로 위용시켜주시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오늘의 특대사건은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오직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 온 조선인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험악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풀까지 나아갈 것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최후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막판을 안고 새기와 새대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투철한 혁명적수행관을 지니고 우리 운명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복속으로 결사옹위하며 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인민군장병들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무적의 군력으로 결사옹위하며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푹한다면 산악과 같이 펼쳐 일어나 침략자, 도발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의무를 만드시실것이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 있어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과감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반진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반드시 일망치 수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자력갱생의 마치를 역사에 붙여잡고 만리마레고지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한KW의 전진, 한의 서안이라고

더 생산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계대 제1선관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에서 또다시 통창촌을 불미 미세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압작전들을 단호히 거부서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숙군과 어영, 안변, 통천군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행성을 전진하는 초강력일해무기의 비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천백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공헌한 미군은 핵전투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강력한 국가핵무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가장 혁명적인 인민정권과 존엄한 자립적경제체제가 있기에 원수들이 그 어떤 형태의 제재봉쇄를 가해온다 해도 우리들 절대로 놀라울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뭉쳐 핵강국을 필적하기 위한 반제반미대결전을 끝까지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수산부문을 로동계급이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물처럼 적극적인 어로전선을 벌려 포구마대에 《어재어정》을 펼쳐놓음에 대하여 강조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지니고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분명국의 체모에 맞게 더 잘 꾸리며 모든 산물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시일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며 혁명의 수뇌부와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제1인군위병, 제1일군사대가 될데 대하여 강조했다.

혁명시, 영광, 신천, 황주군 등의 군민경축대회장에서도 주체의 핵강국의 공민된 긍지라고 위대한

시각이 오면 원수의 야성을 단숨에 초도화해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새겨안고 만리마시대의 격진장풍마당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출함으로써 아담적인 체제적봉에 미쳐남기는 원수들의 정수리에 쓴엄한 철수를 내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당의 병진로선따라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를 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집관철을 위한 전진총돌격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끊임없이 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지난 8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암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감행하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것이라는 엄정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1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대조선《세계적》을 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욕을 치르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반말을 모르는 공화국의 변함없는 공식립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월 1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대조선《세계적》제2375호를 조작해내는 횡포하고도 비열한 국가테러범

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이 소식에 접한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날강도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증오로 심장을 끓이던 진국가적, 진인민적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보복일념으로 불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 성명에 담는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세계적》조작의 주범인 미국놈들을 미친개처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미국놈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을 삼혹하며 못살게 굴고있는 철천지천썩이다. 그대로 살려놓지 않는 승냥이무리이다.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날강도무리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함용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박멸할 때가 되었다. 미국땅을 초토화하자, 암흑세력으로 만들자.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한 보복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한을 풀자고 한사람같이 요구해나서고있다.

미국의 제재소동에 편승하여 새망을 면 일본의 삼나리족수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미쳐나오고있다.

천진속적 채물들의 꿀을 불수룩 눈에 붙인다. 우리 인민에게 천주에 갇지 못할 죄를 짓고도 사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의 《세계적》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런게 놀아내는 간악한 폭발이들을 거만두어서는 안된다. 일본도상공을 날아넘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놈들에게 단탄의 본패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

잘것없는 일본본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다속으로 치방어야 한다. 일본은 더이상 우리 가까이 들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양된 목소리이다.

남조선피뢰침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서리받는다.

동족의 썩대기를 쓴 미국의 개가 바로 피뢰침들이다. 더 강한 《세계적》로 동족을 압박해야 한다며 너무나도 추하게 놀아내고있다. 더이상 실체하지 못하게 피뢰침들이 되게 다스리자, 불미당장로 친미역적무리들을 끌어내버리자, 그러면 우리 민족모두가 통일된 한강도에서 세계가 보란듯이 더욱 강성번영할수 있다고 확고히

인류의 평화와 안전은 헤비하고 미국의 도용기기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리

사회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격렬한 성토 또한 불소나기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미국이 하라는데로 놀아내는 기구의 어중이떠중이들에 대한 증오로 치가 떨린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되어 무참히 파괴하는 악마의 도구이다. 정의도 도도도 망심도 다 제비리고 대조선《세계적》에 손을 든 말지않 못하는 나라들과 팔라의 유혹에 굴복한 나라들의 작태를 밟아 버려야 한다.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면 그런 기구가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가, 당장 해체해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강력한 요구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개가 짖는다고 하여 산이 무너지는 법은 없으며 백은 그물보다도 못한 《세계적》가 무서워 주춤하거나 할바를 못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극악한 《세계적》조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것은 오직 자기 손에 붙여진 자위적핵무력뿐이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병진의 한길로만 나아가려는 불변의지를 더욱 억척같이 버리게 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구도 깨버릴 절대적힘을 붙여주고 멸적의 활화산을 미끄러지는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기상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리지 말아야 한다.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향한 이 격노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성명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받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주제106(2017)년 9월 13일 평양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